

순천만정원에 움튼 생명나눔의 씨앗

질본, 장기 기증 홍보 캠페인
주제공원 조성...나눔 활성화
산책로와 추모 공간 등 마련

생명나눔의 소중한 의미를 담은 '생명나눔 주제공원'이 순천만 국가정원 내 부지를 받아 조성됐다.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순천만 국가정원에 '생명나눔 주제공원'을 완공했다.

'생명나눔 주제공원'은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를 예우하고 추모해 생명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조성됐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네덜란드 정원을 지나 메타세콰이어 길 바로 옆에 있는 주제 정원은 연간 600여만명이 방문하는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객을 비롯해 전국민에게 장기이식등을 통한 생명 나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질병관리본부는 661㎡(200평)의 부지를 순천시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지난해 9월 생명나눔 조형물인 '생명이은집'을 마련한 후 올해 추가 조경을 통해 완공했다.



'생명나눔 주제공원' 조감도

생명이은집은 '장기기증은 서로 다른 삶의 융합이자 누군가의 삶의 연장'이라는 점을 건축과 공익광고를 접목시켜 표현한 설치조형물이다. 생명이은집은 '광고 천재'로 유명한 이재석씨가 맡았다.

산책로와 추모공간, 포인트 가든 등으로 꾸민 주제정원은 희망의 씨앗을 어루안는 형태로 생명나눔의 기여로 체온을 나눈다는 의미를 표현했다.

주제정원을 설계한 윤문선 작가는 생명을 살리는 'SAVE'의 'S'와 '순천(Suncheon)'의 'S'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시민들이 정원을 거닐며 기증자들의 숭고한 삶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정원을 통해 국민 모두가 따뜻한 체온을 나누고 생명나눔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는 추세지만 실제 기증희망등록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2.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15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했으며 77명의 뇌사자가 인체조직을 기증했다. 24일 기준 광주 5명, 전남 12명 등 17명이 장기기증을 기다리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57명이 대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뇌사자 1명이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 장기와 뼈, 피부, 혈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해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희망할 경우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거쳐 신청하거나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422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에 생명나눔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생명나눔 주제공원'을 마련했다.

어르신 뱃살 관리 경로당서 하세요...남구 '건강쉼터'

광주시 남구에서 운영 중인 '더 푸른 건강쉼터'를 찾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10주에 걸쳐 광주시 남구 효덕동 광진 경로당, 주월2동 봉주 경로당, 주월1동 경남 경로당 등 남구 7곳 경로당에서 어르신 77명을 대상으로 '더 푸른 건강쉼터'를 운영했다.

남구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인지 건강쉼터(광진경로당)와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바른 건강쉼터(봉주 경로당), 근력 강화 등 운동을 위한 활력 건강쉼터(진월·경남·신흥·노대·현대 경로당)로 세분화했다.

'더 푸른 건강쉼터'를 운영한 결과 이곳 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들의 신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보면 인지 건강쉼터 이용 어르신들의 경우 시공간 실행력 및 어휘력, 주의력, 문장력, 자기 효능감, 노인 우울분야 검사에서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 남구 어르신들이 한 경로당에서 수건을 이용해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바른 건강쉼터 이용 어르신들은 인지기능, 영양관리,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총중성지방, BMI, 체력측정 등의 객관적 검사 지표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

활력 건강쉼터 이용 어르신 역시 혈압과 혈당, 몸무게, 비만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다만 복부둘레가 소폭 증가하고, 여전히 고위험 허약노인 범주에 포함된 다수 어르신이 있어 건강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구 관계자는 "객관적 검사 지표에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고, '더 푸른 건강쉼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 향후에는 더 확대 운영해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읽고싶은 책, 도서관 23곳으로 배달합니다

광주시 서구가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해주는 '책배달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한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책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서구는 올해 18개 동 전부 책배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책배달 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는 도서를 구립도서관 및 관내 작은 도서관에서 받아보기를 신청하면 그 도서

를 원하는 도서관으로 배달해주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이다.

'책배달 서비스'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는 서구 구립도서관 3곳, 공립 작은도서관 6곳, 시공립 작은도서관 2곳, 사립 작은도서관 12곳 등 총 23곳이다.

이 중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오는 2019년 2월부터 운영한다.

'책배달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주 4일 운영되며, 대출 가능권수는 구립도서관 1곳 당 5권, 대출 기간은 15일이다.

책 도착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3일 이내에 신청한 도서관에서 책을 수령하면 된다.

신청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www.seogu.gwangju.kr/library)에서 책배달 도서관을 선택한 후,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면 된다.

책배달 서비스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도서관(062-350-458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뮤지컬 무대·우주직업 탐방...재밌는 도서관

남구 도서관들 '여름교실'

광주시 남구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등학생들의 독서 생활화와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 여름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정보도서관과 푸른길

도서관, 청소년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독서 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 2-3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꾸미는 뮤지컬-책 숲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동화 속 인물을 돋보이게 할 무대 의상

준비와 무대를 준비하는 '내가 만든 동화속 세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독서 및 체험활동이 이뤄진다.

또 같은 기간 푸른길도서관에서도 초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친구야, 우주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독서교실이 열린다.

우주복 패션쇼를 비롯해 슈퍼푸드 만들기, 우주 직업탐방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청소년도서관에서는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초등학교 2-3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수학아, 놀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경매 투자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원 이상
- ▶월 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상담예약. 010-3605-5000